

## ELE 교육에서의 표준 스페인어\*

이만기

서울대학교

이만기(2013), ELE 교육에서의 표준 스페인어.

**초 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표준 스페인어에 대한 개념을 재고하고자 한다. 스페인에서부터 중남미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어에는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스페인어 교수자들은 대부분 스페인에서 수학하여 스페인 억양을 지니고 있고 유럽 스페인어가 표준 스페인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유럽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실상 스페인어권 화자들 사이에 인정되는 표준 스페인어나 교양 스페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사이의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중남미 스페인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서, 중남미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명백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언어의 단일성을 추구하고 있는 스페인 한림원과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의 언어정책을 소개하고, ELE 교육에서 이러한 언어정책을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즉, 스페인어의 음성적, 어휘적 분야에서의 지역적 다양성은 인정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스페인어를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이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형태통사적 분야에서는 ELE 교육에서의 효율성과 교육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자들이 스페인 한림원과 한림원 연합회의 언어정책을 스페인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음성분야와 어휘 분야의 다양성에 비해, 스페인어의 형태통사적 변이는 무시해도 될 만큼 크지 않아, 스페인어권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점도 야기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스페인어의 어휘나 관용구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DELE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표준 스페인어, 스페인어의 다양성, 스페인 한림원, 외국어 교육

---

\*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의 표현상의 차이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Claudia Macías, Ramiro Zúñiga, Francisco Torres, Dorlisca Hilaes, Elizabeth Castro, Mario Palabra, Edgar Mamani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음.

## 1. 서론

스페인어가 20여 개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가르쳐야 하느냐는 스페인어 교수자들이 직면하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연 어느 나라 스페인어가 표준어이고, 또 어떤 스페인어 표현이 올바른 것인지, 또한 모든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스페인어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표준 스페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페인어권 국가들 중 어느 나라의 스페인어, 혹은 어떠한 스페인어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교수자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지역별 스페인어 변이 현상을 나열하고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EL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에 대한 교수법 차원에서의 스페인어의 다양성과 단일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음성적 측면과 어휘적 측면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표준어 정책에 관한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의 언어정책을 살펴볼 것이며, 이를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정책과 상호 비교함으로써 표준어에 대한 각 한림원의 입장을 볼 것이다. 마지막 4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스페인어 교육의 현실에서 중남미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어떠한 방법론으로 소개하고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어 습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2. 스페인어의 다양성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에 국한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스페인어의 다양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중북부 지역에서의 스페인어와 남부 지역의 스페인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낸다. 먼저, 반도 중북부 지역(el centro-norte de España)의 스페인어는 /θ/와 /s/의 음소를 구분하여 *caza* [ká-θa]와 *casa* [ká-sa]를 서로 다르게 발음한다. 또한 /ʎ/와 /y/ 음소를 구분하여 *calló*와 *cayó* 그리

고 valla와 vaya를 서로 다르게 발음한다. 또한 형태론적 특징으로, 남성 단수 직접 목적대명사로 'lo' 대신에 'le'를 사용하는 'leísmo'가 있다. 또한 여성 단수 형으로 간접목적대명사로 'le' 대신에 'la'를 사용하는 'laísmo'도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남부 지역의 스페인어(Español meridional o andaluz)에서는 [ɫ]를 [y]로 발음하는 yeísmo가 있어 'halla'(찾아내다)와 'haya'(haber의 접속법 현재형)는 동음이의어(homónimos)가 된다. 또한 [θ]를 [s]로 발음하는 seseo 현상으로 인하여 'caza'(사냥)와 'casa'(집)는 동일하게 [ká-sa]로 발음되며, 'cocer'(삶다)와 'coser'(바느질하다)도 모두 [ko-sér]로 발음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구개 파열음 [x]를 기식음 [h](우리말의 'ㅎ'에 가까움)로 발음하여 'jaleo'를 [ha-lé-o]로, 'paja'를 [pá-ha]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남부 지역의 스페인어는 중남미 스페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마도 16세기 동안 스페인 남부 지역 출신들이 중남미 지역으로 건너왔기 때문일 것이다. Azevedo(2009, 260)에 따르면, 비록 남부 지역 이외에도 스페인의 여러 지역 출신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을지라도, 이들 다양한 지역 방언들을 구사하던 화자들은 신대륙 아메리카로의 출항을 기다리며 세비아(Sevilla)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고, 카나리아 제도를 거쳐 신대륙으로의 항해가 최소한 4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달루시아 지역의 스페인어 말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어적 합체(convergencia lingüística)의 한 과정으로서, 여러 언어나 방언이 결합하여 생긴 공통의 언어인 코이네(Koin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도 스페인의 부왕청(virreinato)이 있었던 멕시코, 리마, 보고타, 키토와 같은 스페인의 관료들이 머물던 곳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언어적 변이를 보이는 반면에, 항구, 해안 지역이나 카리브해 연안 같은 곳에서는 스페인 선원들이 안착한 지역으로서 스페인 남부 지역의 음성학적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

중남미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스페인 남부 지역의 특징인 seseo와 yeísmo이다. [θ]를 [s]로 발음하는 'seseo'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엘

리트 계층의 멕시코 인들도 철자법(ortografía)을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ácido’를 ‘ásido’로 잘못 쓰는 경우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y/의 발음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같은 곳에서는 zheísmo(halla, haya: [á-ʒa])나 sheísmo(halla, haya: [á-ʃa])가 존재한다. 또한 반도 남부 지역의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중남미에서도 다음과 같은 음성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 (1) a. 모음 사이의 /d/와 /t/의 생략: comprado > compra, para > pa
  - b. 어말음 /d/의 생략: verdad > verdá
  - c. 유음 /r/과 /l/의 중화: puerto > puelto, calma > carma
  - d. 어말음 /n/의 연구개음화: pan [paŋ]
  
- (2) /x/와 /s/의 기식음화와 /s/의 탈락 현상
  - a. caja [ka-ha], gente [hen-te]
  - b. te acuerdas [tea-kuer-da(h)], esta casa [e(h)-ta-ka-sa]

쿠바 작가 Cabrera Infante(1983, 34)의 *Tres tristes tigres*에 나오는 다음 글은 위에서 언급한 중남미 스페인어의 음성적 특징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예: hablar > hablal, nada > na, para > pa, estás > etás, mismo > mimo, entonces > entonse, dice > dise, usted > uté, para arriba > parriba, hace > hase)

- (3) La dejé hablal así na ma que pa dale coldel y cuando se cansó de metel su descalga yo le dije no que va vieja, tu etás muy equivocada de la vida (así mimo), pero muy equivocada: yo rialmente lo que quiero e divestisme y dígole, no me voy a pasal la vida como una momia aquí metía en una tumba désas en que cerraban lo farallone y esa gente, que por fin e que yo no soy una antigua, y por mi madre santa te lo juro que no me queo vestía y sin bailal, qué va: primero vilgen, y entonse ella que me dise, tú, me dise así, moviendo su manito parriba y pabajo, de lo más picúa ella, díseme, tú te puede-dil-aonde-te-de-la-gana, que yo no te voy paral ni ponel freno. Uté no sabe vivil el momento y la vida se la hase difícilísima o séase que ya eté muy antañona pa comprendelme.

한편, Azevedo(2009, 220-223)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지방과 중남미 스페인어에 보편화되어 있는 ‘seseo’ 현상과 기식음화(aspiración) 현상은 스페인어의 역사언어학적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즉,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스어의 하나인 스페인어는 14세기~16세기 사이에 급격한 음성학적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s/, /θ/, /x/와 관련된 마찰음들이다. 다음은 시대별 해당 자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4) 스페인어 마찰음 /s/, /θ/, /x/의 시대별, 지역별 발음변화 양상

Latín	Castellano medieval			Castellano moderno	
	1400년대	1500년대	1550년대	1650년대 이후	
				스페인 중북부	스페인 남부 & 중남미
/k/ CENTU /t/ MARTIU PUTEU	[ts] [tsien-to] [mar-tso] [dz] [po-dzo]	[ts] dentoalveolar [tsien-to] [mar-tso] [po-tso]	[s]	[θ] interdental [θien-to] [mar-θo] [po-θo]	[s] predorsal [sien-to] [mar-so] [po-so]
/s/ MASSA /z/ CASA	[s̺] [ma-śa] [z̺] [ka-za]	[s̺] apicodental [ma-śa] [ka-śa]		[s̺] apicodental [ma-śa] [ka-śa]	[s] predorsal [ma-sa] [ka-sa]
/ks/ EXEMPLU DIXIT	[j] [e-ʃem-plu] [di-ʃe]	[j] palatal sorda [e-ʃem-plu] [di-ʃe]		[x] velar ‘j’ [e-xem-plo] [di-xe]	[h] laringea ‘j’ [e-hem-plo] [di-he]
/li/ FILIU MULIERE	[ʒ] [fi-ʒo] [mu-ʒer]	[hi-ʃo] [mu-ʃer]		[i-xo] [mu-xer]	[hi-ho] [mu-her]

(이만기 2013, 8)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k/, /t/, /s/, /z/, /ks/, /li/로 각각 서로 다르게 발음되던 라틴어의 발음들이 중세 스페인어의 마지막 단계인 1550년대에 와서는 [s], [s̺], [j]로 대부분 치경음(alveolar) 근처 위치에서 마찰음(fricativas)으로 발음되어 너무나 유사하게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중세 스페인어의 casa, caça(caza), caxa(caja)가 각각 [s], [s̺], [j]로 발음할 경우, 이 세 단어가 비슷하게 들려 혼동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 중북부 지방에서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였다. 즉, 이들 세 발음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하여 dentoalveolar [ts]에서 파생된 [s]는 ‘interdental’ 위치로 이동시켜

interdental [θ]로 바꾸어 발음하고, apicodental [s̺]는 그대로 유지하여 두 발음을 분명하게 구분(distinción)하였고, [j]음은 발음위치를 연구개(velar)로 내려 [x]로 발음하여 앞의 두 음과 분명히 차별을 두었다. 이와 반면에, 스페인 남부지방에서는 [s]와 [s̺]음을 구분하지 않고 predorsal 위치에서 혀를 평평하게(plano)하여 발음하는 [s]음으로 통일시켰으며(cf. seseo 현상), [j]음은 완전히 목구멍 밑으로 내려 후두음인 ‘laríngea, faríngea’ 위치에서 기식음 [h]로 발음하였다. 한편, 1492년 신대륙 발견이후, 17세기 이후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 시대에는 남부지방의 스페인어가 집중적으로 중남미 지역에 이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남미 스페인어에 [s]와 [θ]를 구분하지 않는 ‘seseo’ 현상과 [x]를 [h]로 발음하는 기식음화(aspiración)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 남부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존재하는 ‘seseo’ 현상은 치간음인 [θ]가 존재하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는 처음부터 [θ] 발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언어학적 현상이다.

또한 [x] 발음과 관련하여 보이는 다양한 철자법은 시대별 발음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México’와 ‘Méjico’의 표기를 보자. 위에서 보았듯이, 16세기까지는 ‘dixo’, ‘mexilla’, ‘Quixote’와 같은 단어에서 보듯이 ‘x’ 철자는 /j/음을 나타내었다. (당시의 ‘돈키호테’ 소설책 제목이 ‘Don Quixote’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돈끼쇼떼’로 발음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보았듯이, 이들 /j/음은 17세기 이후 현대 스페인어로 발전되면서 연구개음인 /x/마찰음으로 변하고 표기는 ‘j’로 통일하여 ‘dijo’, ‘mejilla’, ‘Quijote’와 같이 표기하게 된다. 그런데 16세기에 정복된 멕시코의 나우아틀어(Náhuatl)에서는 아즈텍의 수도 이름이 스페인 정복자들에 ‘Meshiko’처럼 들렸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스페인어에 있던 /j/ 발음에 해당하던 철자 ‘x’를 활용하여 16세기에는 멕시코를 ‘México’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에서는 이들 ‘x’ 철자를 모두 ‘j’로 바꾸어 멕시코를 ‘Méjico’로 표기하였다. 연구개음인 /x/는 철자 ‘j’(또는 ‘ge’, ‘gi’)에 대응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21년도에 스페인에서 독립한 멕시코는 자국 국민주의

자(nacionalistas)들의 결정에 의해 국명을 아즈텍 조상들이 사용한 발음에서 유래된 철자 ‘x’로 되돌려 ‘México’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철자는 그 당시 발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멕시코 국가명인 México 또는 Méjico의 표기방식은 16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어 발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중남미 스페인어의 일반적인 특징은 인칭대명사의 체계가 유럽 스페인어와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라틴어에서 파생된 스페인어의 인칭대명사 발달사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라틴어 ‘VOS’에서 파생된 중세 스페인어에는 두 종류의 ‘vos’가 있었다. 하나는 2인칭 단수 존칭(fórmula de cortesía)의 vos로서, 이는 17세기 이후 ‘usted’ 존칭형으로 대체되어 사라지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2인칭 복수의 ‘vos’로서 나중에 ‘otros’가 결합하여 ‘vosotros’로 변하게 된다. 즉, 유럽 스페인어에서는, 17세기 이후 2인칭 존칭으로는 ‘vuesa merced / vuestra merced’가 나타나 존칭으로서의 ‘vos’는 사라지게 되었다. (현대 프랑스어의 2인칭 존칭 ‘vous’는 16세기 스페인어의 ‘vo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유럽 스페인어의 인칭대명사 발달사를 보여준다.

(5) 스페인어 인칭대명사 발달사(유럽 스페인어)

라틴어		15~16세기 스페인어		17세기~현재 스페인어	
EGO	NOS	Yo	Nosotros (Nos+otros)	Yo	Nosotros
TU	VOS	Tú	Vosotros (Vos+otros)	Tú	Vosotros
VOS ILLE/ILLA	ILLOS/ILLAS	Vos Él/Ella	Ellos/Ellas	Usted Él/Ella	Ustedes Ellos/Ellas

한편, 중남미 스페인어의 경우, 16세기 당시 사용되던 유럽 스페인어의 인칭대명사 체계가 건너가 사용되었으나 그 실상은 다소 차이가 난다. 먼저, Voseo 현상이다. Voseo 현상이란,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 같은 지역에서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에 ‘tú’ 대신에 ‘vos’를 사용하는 현상을 일컫

는다. Voseo란 스페인어의 발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유럽 스페인어가 중남미로 건너왔을 때인 15~16세기의 스페인어를 반영하는 고어주의(Arcaísmo)와 함께 중남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혁신주의(Renovador)도 동시에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cf. Moreno de Alba, 2002). 왜냐하면 유럽 스페인어에서는 15~16세기 스페인에서 존칭 2인칭 단수로 사용되던 vos가 17세기 이후부터는 usted으로 대체되어 사라진 반면,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중남미 스페인어 지역에서는 스페인에서 건너와 존칭을 지칭하던 vos가 17세기 이후부터는 친칭 2인칭 단수로 그 의미가 변화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남미 일부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voseo 현상은 16세기 스페인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고어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vos 인칭대명사의 의미가 존칭에서 친칭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혁신주의의 모습 또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과 중남미에서의 이러한 인칭대명사의 발달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6) 스페인과 중남미(voseo 지역)에서의 인칭대명사 발달사

		16세기	17세기 ~ 현재
스페인	친칭	Tú	Tú
	존칭	Vos	Usted
중남미 일부	친칭	Tú	Vos
	존칭	Vos	Usted

Voseo와 tuteo는 한 국가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중남미에서도 멕시코나 페루와 같이 부왕령 지역으로서 스페인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던 도시 지역에서는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vos가 사라졌으나, 식민 시대에 행정이나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변두리 지역에서는 vos가 계속 사용된다고 한다. 그 한 예로 vos가 사라진 멕시코에서도 치아빠스 Chiapas 주에서는 voseo 현상이 남아 있다.

유럽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 인칭대명사 체계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차이점은 중남미 전 지역에서는 2인칭 복수 인칭대명사에 ‘vosotros’를 사용



하지 않고 그 대신에 ‘ustedes’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에서의 인칭대명사 발달사와 그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7) 유럽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에서의 인칭대명사 체계 비교

유럽 스페인어		중남미 스페인어	
Yo	Nosotros	Yo	Nosotros
Tú	Vosotros	Tú/Vos	Ustedes
El/Usted	Ellos/Ustedes	El/Usted	Ellos/Ustedes

이러한 두 지역에서의 인칭대명사 체계의 차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발화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8) a. Fulanito y tú deberéis lavaros las manos. (유럽 스페인어)

b. Fulanito y vos deberán lavarse las manos. (중남미 스페인어)

이번에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통사론적 변이를 살펴보자. 한 언어가 통사론적으로 변화를 겪으면 방언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스어가 서로 다른 새로운 언어들로 변화된 것도 라틴어의 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로망스어는 더 이상 라틴어의 방언이 아닌 새로운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라틴어가 지녔던 명사의 격변화 굴절 어미가 사라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즉, 라틴어의 어순을 자유롭게 하던 명사의 격변화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로망스어의 통사적 어순이 비교적 고착화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럽 스페인어가 중남미로 건너와 여러 어휘적, 음성학적 변이를 겪었지만, 통사론적 변이는 거의 겪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중남미 스페인어가 유럽 스페인어와 동일한 통사론적 문법 규칙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카리브 스페인어(Español caribeño)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문문에서의 주어의 위치가 일반 스페인어 의문문에서의 어순과는 다르다고 한

다. 즉, 의문사구 의문문에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9) a. ¿Qué tú quieres?
- b. ¿Cómo ellos están?
- c. ¿Cuándo ustedes vienen, mañana o pasado?
- d. Yo vivo en Miami. ¿Dónde tú vives?
- e. Yo enseño español. ¿Qué tú haces?

또한, 다음과 같은 ‘haber’나 ‘hacer’ 무인칭 구문에서 유럽 스페인어에서는 무인칭 구문으로서 3인칭 단수형 동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후치 명사구를 주어처럼 취급하여 수에서의 일치(concordancia de número)를 보인다.

- (10) a. Habían muchas personas.
- b. Hacían varias horas que esperaba.

마지막으로, 중남미 스페인어가 유럽 스페인어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어휘적 변이(variación léxica)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어휘적 차이

España	Argentina	Puerto Rico	México
autobús	colectivo	guagua	camión
acera	vereda	acera	blanqueta
piscina	pileta	piscina	alberca
americana	saco	gaban	saco
bañador	malla	traje de baño	traje de baño
piso	departamento	apartamento	apartamento
gafas	lentes	espejuelos	lentes
cazadora	campera	jacket	chamarra
calcetines	zoquetes	medias	calcetines

(이만기 2013, 15)

위에서 보듯이, 스페인어는 사용 지역에 따라 어휘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자켓’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americana’도 있지만 ‘saco’

이기도 하고, ‘gaban’이기도 한 것은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지리적으로 좁은 한 언어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 화자들 스스로도 잉여성과 번거로움을 인식하게 되고,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경쟁한 끝에 결국 한두 단어만 살아남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새로운 대상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 대상을 지칭하는 여러 신조어가 등장하다가, 시간이 흐르며 대중이 많이 선택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도태되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어휘에서 차용된 스페인어 명사의 경우, 해당 단어의 성(género)을 결정해야 하는데, ‘Internet’의 경우, 초기에는 ‘el Internet’과 ‘la Internet’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공존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el internet’만 사전에 등재된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동의어는 언중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간소화 되는데, 스페인어는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적 변이로 인한 동의어가 많이 생겨났다. 즉, 워낙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다 보니 언중들이 전체 지역 단위로 소통하기 어려워 일종의 어휘적 분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스페인어는 표준어도 정해지지 않고, 중남미 스페인어의 중요성도 높아지다 보니 유럽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를 모두 배우는 외국인 화자들에게 이런 어휘적 다양성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Qué difícil es hablar el español’이라는 동영상은 이러한 문제를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 이 영상에는 두 남자가 기타를 치며 스페인어 배우기가 어려움을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2) <Qué difícil es hablar el español> 노래 가사의 일부  
 Y cambiando una vocal la palabra queda chucho,  
 Y chucho es un perrito en Salvador y Guatemala,  
 Y en Honduras es tacaño, y a Jesús le dicen Chucho,  
 Con tantas definiciones cómo se usa esa puta palabra.  
 Chucho es frío en Argentina, chucho en Chile es una cárcel,  
 Chucho en Méjico si hay alguien con el don de ser muy hábil.  
 (<http://www.youtube.com/watch?v=Xyp7xt-ygy0>)

위 가사를 보면 스페인어에는 지역에 따라 동일한 어휘(예: pana, porro, chucha, chucho)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 스페인어를 배우는 외국인 화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 lo aprendes, no te muevas de región’라는 가사는 스페인어 권 지역에 따른 이러한 어휘적 다양성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한편, 언어문화의 한 예로서 유럽 스페인어에서의 ‘coger’, ‘tirar’와 ‘huevos’와 같은 어휘는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타부어로 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소개한다.

- (13) Las aventuras de su español le enseñaron a nuestro turista la discreta virtud del silencio. En Buenos Aires aprendió a agarrar el tranvía, como en Venezuela a botar el pitillo y en México a pedir blanquillos.... Ya en Venezuela le habían aconsejado no preguntar a nadie por su madre (hay que preguntar por su mamá, hasta a un anciano).

(Azevedo 2009, 270; Rosenblat, 1962 재인용)

이상과 같이 스페인어에는 다양한 지역적 방언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되듯이, 이러한 변이 현상은 표면적 차이점에 불과하며 스페인어 권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스페인어의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다양성은 음성적, 어휘적 특징에 국한된 지엽적인 대상으로서,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문법으로서의 스페인어는 전 스페인어 권에 걸쳐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이 상호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sup>1)</sup>

- (14) Pese a la variación encontrada particularmente en el habla popular, el español americano posee una base morfológica, sintáctica y léxica común

1)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연구로는 Cuervo(1954), Ávila(1977; 1992), Alvar(1986), Kany(1976), Lipski(1998), Rosenblat(1962; 1977), Coseriu(1990), Tamarrón(1995), Moreno de Alba(1996; 2002), Quesada Pacheco(2005)를 참조하기 바람. 중남미 스페인어의 다양성에 관한 국내 학자의 입장에 관해서는 김우성(2000; 2001), 조혜진(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que permite la comunicación, sobre todo a nivel culto, entre hablantes de los distintos países. Asimismo, las diferencias con el español peninsular son más de superficie que de fondo.

(Azevedo 2009, 272)

### III. 스페인 한림원과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의 언어정책

#### 1.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

앞서 살펴본 스페인어의 다양성 앞에서, 스페인 한림원을 중심으로 스페인어 권 21개국으로 구성된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에서는 어떠한 언어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이러한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의 스페인어 언어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한국의 스페인어 교수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스페인어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에서 2009년도에 발간한 『스페인어 신문법서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와 2011년도에 출간된 『스페인어 철자법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을 기본 축으로 하여 스페인어 한림원에서의 스페인어 언어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스페인어가 존재한다는 현실 앞에서, 스페인 한림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언어정책은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를 교육하고 있는 교수자들에게 바람직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림원 연합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단일성 속에서의 다양성의 추구라면 어느 정도까지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의 다양한 음성적 현상, 다양한 어휘상, 다양한 문법적 양상을 다루면서, 한림원 연합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특히, 문법적 측면에서 스페인어 한림원에서 정확한 문장과 부정확한 문장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714년 Felipe V의 스페인 중앙집권정치의 산물로 탄생한 스페인 한림원은 ‘Limpia, fija y da esplendor’라는 기치를 내걸고 스페인어의 단일성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스페인 한림원은 스페인어 권 21개국의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전 세계 22개국의 한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 왕립 한림원(1714), 콜롬비아 한림원(1871), 에쿠아도르 한림원(1874), 멕시코 한림원(1875), 엘살바도르 한림원(1876), 베네수엘라 한림원(1883), 칠레 한림원(1885), 페루 한림원(1887), 과테말라 한림원(1887), 코스타리카 한림원(1923), 필리핀 한림원(1924), 파나마 한림원(1926), 쿠바 한림원(1926), 파라과이 한림원(1927), 볼리비아 한림원(1927), 도미니카 한림원(1927), 니카라과 한림원(1928), 아르헨티나 한림원(1931), 우루과이 국립 한림원(1943), 온두라스 한림원(1948), 푸에르토리코 한림원(1955), 북미 한림원(1973).

이들 한림원에서는 특정 지역의 스페인어를 표준어로 간주하지 않으며, 스페인어 권 전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모두 인정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각국의 한림원에서 보고하는 새로운 어휘를 심사 위원회를 거쳐 사전에 등재시키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스페인어 사전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은 2001년에 발간된 22판 이후, 현재 23판이 스페인 한림원 창시 300주년 기념을 위하여 출판을 준비 중에 있다.<sup>2)</sup> 또한,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2) 스페인 한림원과 한림원 연합회에서 편찬하는 스페인어 사전은 너무 지나치게 반도 스페인어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남미의 다양한 스페인 어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한림원장인 José Luis Moure를 인터뷰한 Ricardo Soca(2013)의 인터넷 기사는 아르헨티나 한림원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http://www.elcastellano.org/ns/edicion/2013/julio/moure.html>)

(El nuevo presidente de la Academia Argentina de Letras, José Luis Moure) No está conforme con el hecho de que sea la RAE, la que decide qué argentinismos deben incorporarse al diccionario que se supone que es de todos, y se pregunta por qué no todas las palabras identificadas como pertenecientes a la variedad rioplatense son «admitidas» por la real casa madrileña: *No tengo la respuesta para eso; es decir, nos obligan a elegir los mejores hijos para ir allá. De todo ese corpus de palabras claramente argentinas, claramente estudiadas como propias de este territorio, solamente algunas son admitidas, posiblemente en función de su vitalidad o de su mayor extensión, como para integrar ese repertorio léxico que hoy llamamos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que teóricamente representa al conjunto de los países que hablan español. [...] Moure advierte que los hablantes de las variantes peninsulares no son más del diez por ciento*

각국의 한림원 연합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동 작업을 통하여, 스페인어 문법(Gramática), 철자법(Ortografía)과 같은 간행물도 주기적으로 개정 출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신규 문법서(*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가 2009년에 발간되었으며, 개정된 스페인어 철자법(*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도 2011년에 발간되어 전 스페인어 권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스페인어 교육의 기본 지침서로 삼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 왕립 한림원과 스페인어 권 각국의 한림원 연합회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스페인어는 그 지역적, 국가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러 언어로 분열되지 않고 동일한 문법 체계 하에 언어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스페인어 표준어

과연 스페인어에는 표준어가 존재하는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국립국어원 표준어 총칙에서 표준어를 규정한 우리나라처럼 스페인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스페인어 표준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어는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도 다양한 음성적 변이를 지닌 방언이 존재할 뿐더러,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19개 국가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스페인어를 표준어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국영 방송의 아나운서가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스페인어를 구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필자는 스페인 TVE 국영방송에서 카나리아 제도 출신의 아나운서가 출신 지역의 억양으로 일기예보를 한 것을 기억한다.)<sup>3)</sup>

---

del total de hispanohablantes, por lo que desde el punto de vista numérico, proporcional, ese léxico americano tendría que tener una presencia mucho mayor en ese diccionario, lo cual lo haría inmanejable, o prácticamente inmanejable. El académico argentino señaló que el DRAE contiene regionalismos peninsulares que en muchos casos representan a comunidades muy pequeñas, mientras que faltan palabras de México o de Colombia que son utilizadas por millones de hablantes.

스페인어의 지역별, 국가별 다양성을 부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카스티야 지역의 스페인어(castellano), 안달루시아 지역의 스페인어(andaluz), 엑스트레마두라 지역의 스페인어(extremeño), 무르시아 지역의 스페인어(murciano) 등 다양한 방언들(dialectos)이 존재한다. 이들은 스페인어에 속하는 방언으로서,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하는 스페인어 이외의 또 다른 개별 언어들인 카탈루냐어(catalán), 갈리시아어(gallego), 바스크어(euskera)와 같은 지역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스페인어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국가별, 지역별(해안지역과 내륙지역, 저지대와 고지대 지역 등), 사회계층별로 다양한 방언이 존재한다.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페루 스페인어, 멕시코 스페인어, 파라과이 스페인어, 콜롬비아 스페인어, 카리브 스페인어 등이 그것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스페인어 방언이 공통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 대 방언(macrodialecto)으로 모두 함께 묶기도 한다. 예를 들어, 쿠바, 도미니카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를 공히 카리브 방언(dialecto caribeño)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스페인어에는 여러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여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스페인어를 표준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즉,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만을 표준 스페인어(español estándar) 또는 교양 스페인어(español culto)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마드리드의 스페인어는 스페인어의 여러 방언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Azevedo(2009)에서 지적하였듯이, ‘중남미 스페인어’(español de América)라는 명칭도 잘못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의 스페인어를 단일한 하나의 방언으로 칭할 만큼 중남미 여러 국가들의 스페인어를 모두 아우르는 공통의 언어적 특징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남미 여러 지역에 다양한 스페인어 방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남미에서의 스페인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3) Raúl Ávila(2003)에서는 스페인어권 방송 매체에서의 ‘표준 발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에는 지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방언(dialectos)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말의 표준어 규정에서처럼 ‘수도 마드리드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스페인어’를 표준어로 정하기에는 그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스페인어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19개 중남미 국가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스페인어를 모두 아울러 하나의 단일어로서의 스페인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수도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스페인어를 표준어라고 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러했다가는 멕시코 스페인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칠레 스페인어 등 19세기 중남미 독립 시대에 벌어졌던 현상처럼 중남미 각국의 여러 언어로 분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sup>4)</sup>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한림원과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에서 공동 작업하여 2005년도에 출판한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에 언급된 표준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자. 이 사전의 서문 소개 부분에서는 언어 규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규범이란 화자들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한 언어의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모델로 선호된 것들의 집합체이다. 만약 이러한 공통의 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화자들은 개별적으로 원하는 말투로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의사소통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규범이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 코드를 뜻하며, 이러한 언어 규범에는 정치권력의 어떠한 언어적 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보더라도, 언어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의 스페인어를 표준 스페인어라고 명명하지는 않고 있다. 즉, 지역별, 국가별, 계층별, 또는 담화 상황별로 스페인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어라는 언어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를 언어문화 유산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4) 스페인 한림원 언어정책에 반발하여 발생한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에서 전개된 국어 논쟁은 박병규(2010)를 참조하기 바란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스페인 한림원과 스페인어 권 각국의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가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 속에서도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스페인어 권 화자가 모두 함께 공유하는 스페인어라는 기호, 코드로서의 언어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스페인어가 아무리 다양하게 보이더라도 몇몇 특정 어휘에 한정되어 있으며, 음성학적 변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문법이라는 거대한 언어 체계로서의 스페인어에는 모든 스페인어 권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법 규칙이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더라도 아직은 형태·통사론적인 부분에서는 두드러진 변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 3. 스페인 한림원의 표준어 정책: 철자법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어 권 언어정책은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 추구’라고 집약할 수 있다. 중남미와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스페인어 어휘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페인어라는 언어의 골격이 되는 문법을 통일시키고 있다. 즉, 스페인어라는 문법 골격은 하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권 화자들은 별 문제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존재하는 발음의 차이, 어휘의 상이한 사용법 등이 있겠다. 그러나 한림원에서는 이들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국가의 스페인어 사용법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매년 한림원에서는 회의를 통하여 중남미 국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RAE 사전에 등재시켜 새로운 사전이 편찬될 때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한림원의 정책은 표준어와 방언으로 이분화시켜 표준어 위주로 언어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스페인 한림원을 중심으로 한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에서 취하고 있는 언어정책이 무한정 모든 스페인어 권 화자들의 지역별로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다양한 문법적 구문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스페인 한림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전에는 각국,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로 상이한 어휘들을 모두 인정하여 등록하고 있는 반면, 철자법의 경우에는 표준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철자법이 각 지역,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면 스페인어의 단일성을 유지하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발음 중에 seseo가 있는데 이는 /θ/ 발음을 /s/로 하는 것이다. 이 발음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 그리고 중남미 전 지역에 걸쳐 퍼져있는 일반화된 발음 현상이다. 이에 따르면, casar(결혼하다)와 cazar(사냥하다)가 동일한 것으로 발음되게 된다. 만약, 철자법이 없다면 seseo로 발음하는 해당 지역에서는 두 어휘를 동일한 철자인 ‘casar’로 표기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yeísmo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이 현상은 /ll/ 발음을 /y/로 발음하는 것인데, 역시 중남미와 스페인의 남부 지방에서 흔한 발음 현상이다. 한림원에서는 이들 발음 현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두 발음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표준 발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철자법에서는 해당 어휘를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calló(조용히 했다)와 cayó(떨어졌다)라는 두 어휘는 분명히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이나, yeísmo로 발음하는 화자들은 두 어휘를 공히 ‘cayó’로 발음할 것이다. 발음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더라도, 이 두 어휘의 철자법은 서로 다른 알파벳인 ‘ll’와 ‘y’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이들 seseo와 yeísmo 현상은 발음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철자법만은 구분하여야 한다는 한림원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스페인 한림원 연합회에서는 최근 편찬된 철자법을 통하여 전 스페인어권 국가의 화자들이 신규 철자법에 의거하여 스페인어를 쓰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RAE에서 2011년도에 발행한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에서 제시한 수정된 철자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 수정된 스페인어 철자법

- a. 두 글자로 구성된 ch와 ll 철자를 abecedario에서 배제한다.
- b. Abecedario 철자의 이름을 하나로만 단일화시킨다.
- c. 스페인어로 차용된 외래어와 라틴어 어휘의 q 철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 철자 c로 대체한다: ‘quorum > cuórum’

- d. 이중모음, 삼중모음에 표시하였던 강세 표시를 제거한다:  
guion, truhan, fie, liais, 등.
- e. 애매한 경우에도 solo 부사와 지시 대명사에 붙었던 강세 표시를 제거한다.
- f. 이접 접속사 ‘o’에 표기하였던 강세를 없앤다.
- g. 접두사 표기 규칙을 정함: exmarido, ex primer ministro.
- h. 외래어(extranjerismos), 라틴어원(latinismos) 표기법과의 비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강세표시(tilde)와 관련된 5항이다. 스페인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solo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부사(Solo llevaba un par de monedas en el bolsillo)와 ‘홀로’라는 형용사(No me gusta estar solo)로 사용된다. 또한 지시사 este, ese, aquel과 같은 단어는 대명사(Este es tonto; Quiero aquella)로도 기능하지만, 한정사(aquellos tipos, la chica esa)로도 기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사 sólo와 대명사 éste에는 강세를 표기하였으나 앞으로는 문맥상 애매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강세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solo는 부사와 형용사로, este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한정사로, 서로 다른 범주임에도 동일하게 표기될 것이다. 이들 단어에 강세를 통하여 두 가지의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스페인어의 강세 표기 규칙에 근거한다. 즉, 스페인어 어휘가 2음절 이상인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위치(llano)에 강세가 오면 정상적 강세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강세 표시를 하지 않아도 이들 단어가 강세 단어(tónicas)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 동일한 철자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단어에 강세를 표기하여 구분하는 경우는 단일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강세 단어(tónicas)와 무강세 단어(átonas)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해서이다. 예를 들어, 강세대명사 *él*과 무강세 정관사 *el*이 그것이다. 기존 방식인 강세 표기의 장점은 이들 단어가 다음과 같이 문장 내에서 애매한 경우, 강세의 표기로 그 기능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Trabaja sólo los domingos.(‘오직’이라는 부사로 사용된 경우)/ Trabaja solo los domingos.(‘혼자서’라는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Por qué compraron

aquéllos libros usados?(‘저 사람들’이란 지시 대명사로 사용된 경우)/ ¿Por qué compraron aquellos libros usados?(‘저 중고 책들’이라는 지시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그러나 본 철자법 규칙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위치에 강세가 오는 단어는 강세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예문과 같은 애매한 경우에는 담화 상의 문맥이나 어순의 변화 등을 통하여 해당 단어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발음과 어휘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언어 사용법을 인정하면서도 표기법만은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스페인 한림원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철자법에서의 표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준어 표기법과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1986년 제정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에 따르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5)</sup> 이 규정에 의거, 외래어의 파열음을 우리말로 표기할 때 된소리(ㅃ, ㅆ, ㅈ, ㅊ)로 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경우 된소리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Pablo Picasso는 ‘빠블로 빠까소’가 아니라 ‘파블로 피카소’인 것이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에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껌, 빵, 뼈라, 빨치산, 히로뽕’과 같은 외래어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표기법 논란에 휩싸였던 ‘짜장면’과 ‘자장면’의 경우, 된소리 표기 금지 원칙과 관용 표기 허가 원칙 사이의 혼란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즉, 된소리 표기 금지 규정에 따라 ‘자장

5)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 표기 금지 원칙은 다음과 같은 한국어와 외국어의 음소 불일치 현상에 기인한다. 즉, 한국어의 파열음이 평음(ㅂ, ㄸ, ㄱ), 거센소리(ㅃ, ㅆ, ㅋ), 된소리(ㅍ, ㅊ, ㅈ)와 같은 세 종류의 음소 대립 쌍을 보이는 반면에, 영어나 스페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는 유성파열음(b, d, g), 무성파열음(p, t, k)이라는 두 종류의 대립 쌍만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래어의 유성 파열음 ‘b, d, g’는 한국어의 평음(무성 파열음)인 ‘ㅂ, ㄸ, ㄱ’에 일치시키고, 외래어의 무성 파열음 ‘p, t, k’는 한국어의 거센소리(무성 파열 기식음)인 ‘ㅃ, ㅆ, ㅋ’로 일치시킨다. 이러한 된소리 표기 금지 원칙은,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외래어 간의 음소를 일치시키고자 한 예로 볼 수 있다.

면'으로 표기하다가, 다시 '짜장면' 표기를 허용한 것은 대중의 관용 표기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sup>6)</sup>

#### 4. 스페인 한림원의 표준어 정책: 문법

문법이 단일화되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언어는 여러 개의 언어로 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스어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스페인어는 다행히 문법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법적 측면에서도 갈수록 중남미 스페인어와 유럽스페인어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법적 다양성을 피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철자법에서의 표준화 정책 이외에도,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표준 문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즉, 스페인어 권 화자들이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구문들을 예로 들어, 맞는 사용법과 틀린 사용법을 구분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구문을 올바르게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AE(2011)의 *Nueva gramática básica de la lengua española*에서는 틀린 문장(oraciones incorrectas)의 예들을 언급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6) Leísmo는 '남성 단수'에만 허가되며, laísmo, loísmo는 모든 경우에서 틀린 표현이다.
- a. A Mario {lo/le} premiaron en el colegio.
  - b. A tus hijos hace año que no les veo. (×)
  - A tus hijos hace año que no los veo. (○)

---

6)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17) ‘cantara’를 쓸 자리에 ‘cantaría’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a. Si llovería, no iría. (×)  
→ Si lloviera (lloviese), no iría. (○)
  - b. Lo hizo para que sería más cómodo. (×)  
→ Lo hizo para que fuera (fuese) más cómodo. (○)
- (18) ‘decir, señalar, indicar’ 동사나, 누군가를 향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맥에서 등장하는 동사들의 경우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a. Señores, informarles (de) que... (×)  
→ Señores, les informo (de) que... (○)
  - b. Por último, decir que... (×)  
→ Por último, quisiera decir que... (○)
- (19) 신문이나 행정 언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처럼, 현재분사를 명사의 제한 수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계절이나 전치사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Nueva ley reformando las tarifas aduaneras. (×)  
→ Nueva ley que reforma las tarifas aduaneras. (○)  
→ Nueva ley para reformar las tarifas aduaneras. (○)
- (20) 순수한 시간적 후행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현재분사는 옳지 않다.
- Estudió en Madrid, yendo después a Buenos Aires. (×)  
→ Estudió en Madrid, y fue después a Buenos Aires. (○)
- (21) 다른 전치사가 쓰여야 할 자리에 전치사 ‘de’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a. Ser adicto de algo (×)  
→ Ser adicto a algo (○)
  - b. Hacer algo de urgencia (×)  
→ Hacer algo con urgencia (○)
  - c. Perder de quince puntos (×)  
→ Perder por quince puntos (○)
- (22) 스포츠 언어의 전형으로써, ‘hacia’나 ‘a’, 혹은 ‘contra’ 대신 전치사 ‘sobre’를 사용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또한 어떠한 부분이 차지하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 ‘de’ 대신 ‘sobre’를 취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 a. tirar sobre puerta (×)  
→ tirar {hacia/a/contra} puerta (○)

b. Votaron a favor cinco sobre veinte participantes (×)

→ Votaron a favor cinco de veinte participantes (○)

(23) ‘en base a’는 잘못된 표현이며, 이를 대신하여 ‘basándonos en, con base en, sobre la base de, con apoyo en’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권한다.

(24) 존재구문에서 haber 동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수의 일치치를 보이기도 하지 만, 3인칭 단수의 사용을 권장한다.

a. Habían suficientes pruebas. (×)

→ Había suficientes pruebas. (○)

b. Hubieron dificultades. (×)

→ Hubo dificultades. (○)

예를 들어, (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어 권 지역별로 ‘leísmo, laísmo, loísmo’와 같은 다양한 약세 대명사의 사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에 국한된 ‘leísmo’만을 교양어로 인정 한다. 즉, laísmo와 loísmo는 틀린(incorrecto)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한 (24)에 서 보듯이, 존재 동사 ‘haber’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설명이다. 스페인 한림 원에서는 존재 동사 ‘haber’의 경우 주어가 결여된 무인칭(impersonal) 동사이 기 때문에 항상 3인칭 단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존 재 구문에 등장하는 후치 명사구는 주어(sujeto)가 아니라 직접목적어 (complemento directo)이기 때문에, haber 동사는 위의 예문처럼 후치 복수 명 사구와 일치하여 3인칭 복수로 굴절 어미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스페 인어의 동사는 주어와 일치하지, 목적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법 학자들이 바라는 바대로 스페인어 권 화자들이 따라가 지 않는다는데 있다. 아직도 중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위와 같이 haber 동사 가 후치 복수 명사구와 일치하여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 도 그러한 사용법이 계속 확산되어 간다면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결국 언중의 사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법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페인어의 ‘haber’ 존재 구문은 주어뿐만이 아니라 목적어와도 일치할 수 있다.”



## 5. 우리말의 표준어 정책

우리는 앞서 스페인어 권에는 국가별,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스페인어가 존재하며, 스페인 한림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성 속의 단일성이 스페인어권 화자들의 실제 사용법을 중시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양어(lengua culta)로서의 표준 스페인어 문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만큼 문법에 변화가 생기면 언어가 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한 언어를 목표로 한다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한림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립국어원이 있다. 그러나 표준 스페인어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스페인과는 달리, 국립국어원 표준어 총칙에는 표준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한국어에는 표준어와 방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 규정에 맞게,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말의 표준화 정책은 언어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립국어원의 언어정책은 다양성을 배제하고 단일성만을 고집하는 표준어 정책으로서, 이러한 우리말 표준어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일성을 추구하는 스페인 한림원의 언어정책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 6. 표준 언어 규범과 언어 사용의 다양성

우리는 지금까지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통하여 언어공동체의 다양한 언어의 사용법과 이를 단일화 시키려는 각국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스페인 한림원을 중심으로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스페인어를 인정하면서도 문법과 철자법에서는 교양어를 규범적으로 정하려는 노력을 보았으며,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어 원칙을 정하여 단일화되고 통일된 표준 한국어를 전 국민에게 보급시키려는 언어정책도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규범적으로 한 언어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법의 옳고

그를 정해 놓더라도, 해당 언어권 화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잘못된 사용법을 갈수록 확산시켜 간다면, 결국에는 해당 언어의 문법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리라고 본다.<sup>7)</sup>

한 언어를 규범적으로 정하여 단일성과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의 희망사항일 것이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모습은 언어규범을 뛰어넘어 언어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중남미 스페인어의 다양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표준어라는 개념도 한 언어의 문법은 정확한 규범(norma de corrección)에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한림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스페인어 규범 문법적 관점 또는 표준어라는 측면에서는 잘못 사용된 표현이므로 틀린(incorrecto)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cf. Di Tullio 2007, 27)

(25) Ojalá haiga mucha gente en el acto.

(26) a. La Juana me ha dicho que hoy no viene, que está mala.  
 b. Mira qué vestido se ha comprado la Felisa.

규범적으로 말하자면, 스페인어 동사 ‘haber’의 접속법 현재형은 ‘haya’이며, 스페인어 고유명사는 관사 없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8)</sup>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문장은 틀린(incorrecto) 표현으로 간주된다. (cf. Di Tullio 2007, 31)

(27) a. Estoy seguro que lo sabe.  
 b. Te dije de que no quiero ir.

7) 이만기(2013, 36)에서는 우리말 표준 문법 규범과 실제 사용에서의 차이점의 한 예로, 우리말의 “화장실은 왼쪽에 있으세요.”와 같은 과잉 존대법 현상을 예로 든다. 이는 존대의 대상이 아닌 주어를 존대함으로써 상위 주어를 존대하는 효과를 얻는 간접대우(예: “그 돈은 어머니께 있으십니다.”)의 과잉 사용으로서, 서비스업 과다 경쟁으로 인한 존대법의 오류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 존대법이 계속해서 꾸준히 확장된다면, 규범문법으로서의 한국어 존대법이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8) ‘La Juana’, ‘la Felisa’와 같이 관사가 고유명사 앞에 출현하는 경우는, 카탈루냐어나 갈리시아어, 포르투갈어의 간접현상으로 설명된다.

- c. No vino nadien.  
 d. Lo que mata es la calor.

위의 표현들은 모두 실제 스페인어 권 화자들이 사용하는 문장들이라고 한다. (27a)와 (27b)의 경우, 전치사 ‘de’의 표현과 관련된 지역적 다양성의 문제 (queísmo, dequeísmo)이며, (27c)의 ‘nadien’의 경우는 ‘alguien’에서 파생된 유추(analogía) 현상이며 (27d)의 ‘la calor’는 고어적 표현(arcaísmo)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표준어에 어긋난 표현이므로 규범적 관점에서는 틀린 표현들이다. 그러나 실제 위와 같이 말을 하는 스페인어 권 지역이 있으므로,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들 표현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술 문법적 관점에서는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느 지역이든 화자가 사용하는 대로 기술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어만이 맞는 표현이며 방언은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sup>9)</sup> 이런 점에서 스페인 한림원의 언어정책은 문법 분야에서만은 규범적인 표준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학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법적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숙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 III. ELE 교육과 표준 스페인어

기존의 스페인어 교육에서는 대부분 스페인(마드리드) 스페인어를 표준 스페인어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학습자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경향이 짙었으나, 중남미 스페인어 권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의 향상으로 인하여 현재는 중남미 스페인어, 특히 멕시코 스페인어나 칠레 스페인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역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 앞

9) 현대 언어학 이론은 언어 화자들의 언어 사용을 규범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모든 방언을 포함하여 언어공동체의 다양한 언어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에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서 어떠한 스페인어를 가르치느냐는 문제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교수자들이나 학생들은 스페인어의 다양성과 중남미 스페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페인어 교육의 현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스페인에서 수학한 교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대학의 현실, 중남미 스페인어(또는 특정 국가의 스페인어)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교재의 부족, 스페인 스페인어를 표준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등이 이러한 국내 스페인어 교육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요건이든 취업 스펙을 위해서든 반드시 취득하려고 하는 스페인어 인증시험 DELE도 스페인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페인 스페인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DELE의 경우, 대부분 스페인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스페인어 권 화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나 표현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DELE B1(2008, 2009, 2012), DELE B2(2012)에 출제된 표현들 중 스페인에서만 사용되는 표현들을 추출한 것들로서,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 사이의 어휘나 표현에서의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sup>10)</sup>

- (28) a. “Haz el favor de pasarte por la tintorería...” (DELE B1, mayo de 2008, 15)
- b. “Haz el favor de pasar por la tintorería...” (México)

10) 본 논문에 언급하는 중남미 스페인어와 스페인 스페인어의 표현상의 차이점들은 중남미 원어민 화자들(Claudia Macías(멕시코), Ramiro Zúñiga(멕시코), Francisco Torres(멕시코), Dorlisa Hilaes(페루), Elizabeth Castro(멕시코), Mario Palabra(볼리비아), Edgar Mamani(볼리비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어낸 자료로서, DRAE를 통해 이들 중남미식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의 스페인어 권 국가들의 방송매체(El País(스페인), La Nación(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Cambio(콜롬비아), El Universal(멕시코), La Jornada(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통해 이러한 중남미 스페인어와 스페인 스페인어의 차이점들을 재확인하였다.

- (29) a. formulario cumplimentado (DELE B1, mayo de 2008, 15)  
 b. formulario lleno / rellenado (México)
- (30) Al referirse al lugar acordado para una cita:  
 a. “¿Dónde van a quedar estas personas?” (DELE B1, agosto de 2008, 8)  
 b. “¿Dónde se van a encontrar estas personas?”  
 “¿Dónde quedaron de encontrarse estas personas?” (México)  
 cf. “¿Dónde van a quedar estas personas?” (México)  
 (se refiere al lugar que se les debe encontrar (como alojamiento o  
 acomodo en algún lugar o espectáculo) en México.)
- (31) a. “Gabriela es una persona de lo más corriente.”  
 (una persona normal: DELE B1, agosto de 2008, 10)  
 b. “Gabriela es una persona de lo más corriente.”  
 (México: una persona desagradable por su poca educación)
- (32) a. “que no le cabe el coche en el garaje” (DELE B1, mayo de 2008, 14)  
 b. “que no cabe su coche en el estacionamiento” (México)
- (33) a. “Me apetece estar solo” (DELE B2, 2012, p. 24)  
 “Me apetece mucho ir” (DELE B1, 2012, 32)  
 b. “Se me antoja estar solo” (México)  
 “Tengo muchas ganas de ir” (México)  
 (cf. En México, nunca se usa ‘apetecer’ para frases que no se relacionen  
 con comida o bebida.)
- (34) a. gamba (DELE B1, mayo de 2008, p. 7)  
 b. camarón (México)
- (35) a. gambón (DELE B1, mayo de 2008, p. 7)  
 b. camarón gigante (México)
- (36) a. “estoy pensándomelo” (DELE B1, mayo de 2008, p. 13)  
 b. “estoy pensándolo” (México)
- (37) pollo de quebrantahuesos (DELE B1, agosto de 2008, pp. 9, 16)  
 (cf. En México no se conoce este género de pollos, en el DRAE dice que es

típico del Mediterráneo)

- (38) a. cautividad (DELE B1, agosto de 2008, p. 16)  
b. cautiverio (México)
- (39) a. billete (DELE B1, 2012, pp. 18, 22)  
b. boleto (México)  
(cf. 'Billete' en México se refiere al papel moneda: "un billete de 100 pesos".)
- (40) a. atasco (DELE B1, noviembre de 2008, p. 6)  
b. tráfico (América Latina)  
(cf. 'Atasco' en América Latina se entiende como algo sucio que impide el paso.)
- (41) a. helado (España, Argentina, Chile, Perú)  
(DELE B1, mayo de 2009)  
b. nieve (México y Centroamérica)
- (42) a. heladera (DELE B1, 2009)  
nevera (DELE B1, mayo de 2009, p. 4)  
frigorífico (DELE B1, mayo de 2008, p. 7)  
b. refrigerador (México y Centroamérica)
- (43) a. "Me han quedado las matemáticas" (DELE B2, 2012, p. 25)  
b. "Se me quedó matemáticas" / "Reprobé matemáticas" (América Latina)
- (44) a. ordenador (DELE B1, noviembre de 2008; DELE B1, mayo de 2009;  
DELE B1, 2012, pp. 11, 18, 44)  
b. computadora (América Latina)
- (45) a. carné de conducir (DELE B1, mayo de 2008, p. 16)  
b. licencia de manejo / licencia de conducir (México)
- (46) a. mesilla (DELE B1, mayo de 2008, pp. 11, 12)  
b. mesita (México)

- (47) “No has dado ni golpe” (DELE B2, 2012, p. 24)  
 (la madre le reclama al hijo que no estudió)  
 (cf. no se usa esta frase en América Latina.)
- (48) “¡Qué faena!” / “¡Vaya faena!” (DELE B2, 2012, pp. 25, 26)  
 (cf. no se usa en América Latina fuera del contexto de la tauromaquia  
 (corridos de toros en la plaza))
- (49) a. “como sigamos perdiendo, acabamos los últimos del campeonato...”  
 (DELE B2, 2012, p. 25)  
 b. “como sigamos perdiendo, acabaremos los últimos del campeonato...”  
 (América Latina)
- (50) a. “He estado en casa con escayola hasta hace unos días”  
 (DELE B2, 2012, p. 26)  
 b. “Estuve enyesado en casa hasta hace unos días” (México)
- (51) a. “tiene que ser una gozada ser tu propio jefe”  
 (DELE B2, 2012, p. 26)  
 b. “debe ser magnífico ser tu propio jefe” (México)
- (52) “Nada más conocer la noticia” (DELE B2, 2012, p. 35)  
 “Nada más ver cómo salían los platos” (DELE B2, 2012, p. 27)  
 (cf. nunca se usa esta expresión en México)<sup>11)</sup>

252

253

11) ‘nada más + infinitivo’(~하자마자)는 스페인식 표현으로서, RAE의 consultas lingüística에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La locución **nada más** se usa en España con el sentido de ‘en cuanto’ ante verbo en forma personal, pero sobre todo ante infinitivo. Así, ‘nada más’ se emplea en español para encabezar oraciones temporales que denotan posterioridad.

Ejemplos: Nada más te han metido en el coche has notado sobre la nariz y la boca un pañuelo lleno de peste (Vázquez Montalbán, *Galíndez*); Doña Matilde y doña Asunción se reúnen todas las tardes, nada más comer, en una lechería de la calle de Fuencarral (Cela, *Colmena*); Aseguró que volverían nada más terminar la ceremonia (Millás, *Orden*).

Tal como se recoge en l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Real Academia Española, 2009), vol. II, pág. 2029, § 26.13, se trata de una construcción poco usada fuera de España y el área rioplatense. En el español americano suele

- (53) a. “Me he dado un golpe con el coche” (DELE B2, 2012, p. 26)  
 b. “Choque” (México)
- (54) a. “Tienes que prender el bombillo de la inspiración”  
 (DELE B2, 2012, p. 28)  
 b. “Tienes que prender el foco” (México)
- (55) a. “no puedo ir a buscarles a esa hora”<sup>12)</sup>  
 (DELE B1, mayo de 2008, p. 5)  
 b. “no puedo ir a buscarlos a esa hora” (América Latina)

또한, 동일한 관용구일지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은 ‘ponerse las botas’라는 관용구에 대한 DRAE의 정의이다.

- (56) <ponerse las botas>
1. loc. verb. coloq. Enriquecerse o lograr un provecho extraordinario.
  2. loc. verb. coloq. Aprovecharse extremadamente, y muchas veces desconsideradamente, de algo.
  3. loc. verb. coloq. Hartarse de algo placentero. *Nos pusimos las botas en el restaurante.*
  4. loc. verb. coloq. *Col. y Perú.* Entrar en acción, actuar.
  5. loc. verb. *El Salv.* Mostrar firmeza de carácter o autoridad.
  6. loc. verb. *Méx.* Imponer su voluntad.

그러나 다음 문제에서 보듯이, DELE에서는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실컷 먹다’라는 의미만을 정답으로 요구한다.

- (57) A: ¿Qué tal en la boda de Felipe y Ana?  
 B: ¡Genial! **Nos pusimos las botas.**

---

preferirse *apenas llegó o ni bien llegó a nada más llegar*, pero esta opción se registra en zonas de la Argentina y Chile.”

- 12) 앞서 언급했듯이, RAE에서는 남성 단수 사람(persona masculina singular)을 지칭하는 경우에만 ‘leísmo’를 허용한다. 따라서 복수인데도 leísmo를 사용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a) Bailamos todo el tiempo.
  - b) Comimos mucho.**
  - c) Eramos los más elegantes.
- (DELE B2, noviembre de 2007, p. 13)

이와 같이 DELE 스페인어 능력 인증시험은 스페인 위주의 표현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출신 교수자가 아닌 중남미 원어민 출신의 선생님께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DELE 시험이 상당히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DELE를 주관하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연구소에서는 스페인어 권에서 지역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어휘 표현들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스페인어 어휘와 관용구를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다음에 예시하는 스페인 신문기사의 표현들도 멕시코(중남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 (58) “la espoleta final de las discrepancias” (El País, España)  
([http://politica.elpais.com/politica/2013/07/08/actualidad/1373284931\\_063988.html](http://politica.elpais.com/politica/2013/07/08/actualidad/1373284931_063988.html))
- (59) a. quitamiedos / bionda / guardarraíl (España)  
([http://politica.elpais.com/politica/2013/07/08/actualidad/1373269876\\_046488.html](http://politica.elpais.com/politica/2013/07/08/actualidad/1373269876_046488.html))  
b. valla de seguridad (América Latina)  
barra de contención (México)
- (60) a. “Fallece un motorista en Cuntis al golpearse con el quitamiedos” (España)  
(<http://www.diarioinformacion.com/alicanti/2013/04/12/muere-motociclista-chocar-quitamiedos/1362763.html>)  
b. “Fallece un motociclista en Cuntis al golpearse con el barra de contención” (América Latina)
- (61) a. “patearon la Península en busca del rincón perfecto para instalarse” (España) ([http://sociedad.elpais.com/sociedad/2013/07/05/actualidad/1373048845\\_830820](http://sociedad.elpais.com/sociedad/2013/07/05/actualidad/1373048845_830820))

b. peregrinar (en sentido de ‘andar mucho’) (México)

(62) a. “se cubrirán los alcorques” (España) (<http://www.elperiodico.com/es/noticias/hospitalet/lhospitalet-remodelara-varios-espacios-publicos-del-barrio-bellvitge-2483589>)

b. bache (hoyo en el pavimento de calles, carreteras o caminos) (México)

위에서 보았듯이,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중 상당 부분의 어휘들은 중남미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중남미 스페인어 권 화자들이 해당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어휘뿐만이 아니라, 속어(frases hechas, modismos)의 경우에도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Gordana Vranic(2004)의 *Hablar por los codos*에 소개된 유럽 스페인어 표현들 중, 멕시코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용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63) a. Arrimar el ascua a su sardina (España)

‘Obtener beneficios propios de lo que normalmente debería ser un beneficio común’

b. Mirar por uno mismo (México)

(64) a. Atar los perros con longanizas (España)

‘Suele emplearse en sentido negativo para indicar a alguien que no se haga ilusiones’

b. Ni lo sueñes. (México)

(65) a. Caer chuzos de punta (España)

‘Llover mucho y muy fuerte’

b. Llover a cántaros (México)

(66) a. Cortar el bacalao (España)

‘Frase familiar que se utiliza para indentificar a quien da órdenes o manda en un lugar’

b. El que tiene {la sartén/el cuchillo} por el mango (México)

- (67) Estar entre Pinto y Valdemoro (España)  
 ‘Estar indeciso a la hora de elegir entre dos o más cosas’  
 (cf. Esta frase no se entiende en América Latina porque se trata de los dos pueblos cercanos en la provincia de Madrid.)
- (68) a. Sacar las castañas del fuego (España)  
 ‘Solucionar a alguien un problema haciendo lo que le correspondería hacer a esa persona’  
 b. Sacar de un apuro (México)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중남미 국가로 교환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를 통하여 현지의 스페인어를 습득한 학생이나 중남미 국가 출신의 교포 원어민 학생의 국내 대학으로의 입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이들을 통하여 음성적(발음, 억양, 운율 등) 측면과 어휘적 측면에서의 스페인어의 다양성은 이미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주위 학생들에게 멕시코에서는 ‘madre, coger, tirar’와 같은 단어(cf. 타부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칠레에서는 ‘pagar’ 대신 ‘cancelar’를 사용한다는 점, 중남미에서는 ‘vosotros’ 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아르헨티나에서는 인칭 대명사로 ‘tú’ 대신에 ‘vos’를 사용한다는 점 등을 주위 친구들에게 전파한다. 특히, 중남미 출신 교포학생들 중에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유럽 스페인어의 관용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용구가 스페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의미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용구나 어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 (69) <아부하다>  
 a. hacer la pelota (España)  
 b. hacer la barba (México)
- (70) <컨닝 페이퍼>  
 a. chuleta (España)  
 b. acordeón (Cuba, El Salvador, Honduras, México)

이러한 스페인어의 국가별, 지역별로의 음성적, 어휘적 다양성이 노출되는 현실 앞에서, 국내 스페인어 교수자들이 이를 어떻게 교육현실에 반영할 것인가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스페인어 권 화자들 간에 스페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발음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며, 어휘가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문맥을 통해 충분히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스페인어는 아직까지는 몇몇 발음(예: seseo 현상, yeísmo 현상, /s/ 어말음의 기식음화 현상, 모음 사이의 /s/나 /d/의 탈락현상 등)이나 어휘적 측면(예: 하나의 어휘가 지역별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하나의 의미가 지역별로 다른 어휘로 나타나는 경우, 영어의 차용어 현상 등)에서 다양성이 부각될 뿐이지, 단일화되고 통일된 형태·통사적 문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 속의 단일성 유지는 포르투갈어의 분화 현상과는 대조를 이룬다. 포르투갈어는 음성, 문법, 어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럽 포르투갈어'와 브라질어라고도 불리는 '브라질 포르투갈어'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스페인어를 국가별(예: 멕시코 스페인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칠레 스페인어)로 나누어 가르친다는 것은 효율적 외국어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스페인어의 다양성이 스페인어 권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은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서 최대한의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교수자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스페인어가 지역별로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에서도 소통될 수 있는 표준화된 스페인어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가장 중립적인 교양 스페인어, 표준 스페인어를 가르치거나 배우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 속의 단일성 유지는 스페인 한림원 연합회의 언어정책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일성을 추구하는 스페인 한림원의 언어정책을 살펴보았다. 스페인어의 다양성과 단일성이

충돌하는 경우, 가능한 스페인 한림원의 지침을 우리의 스페인어 교육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스페인어 교수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스페인 한림원이 어휘와 음성분야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철자법과 문법 분야에서는 규범적인 표준어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규범문법에 기반을 둔 언어정책은 언어학자로서 크게 반길 일은 아니지만,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효율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스페인어의 어휘나 발음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되, 문법이나 철자법에서는 통일적이고 단일화된 표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한다.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그 많은 다양한 각국의 스페인어를 일일이 소개해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스페인어 표준어’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스페인어권의 다양한 스페인어를 아우르는 중립적인 스페인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스페인어권 국가별로의 스페인어의 다양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를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교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스페인어의 다양한 변이형을 소개하여 이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스페인어 교수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스페인 스페인어’만이 표준어라는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중남미 국가 출신의 교포학생들을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여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중남미 스페인어를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만큼 중남미 스페인어가 우리나라에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화용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국내 스페인어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은 스페인어 사용국가에 체류하여 현지에서 언어를 습득해 오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Quesada Pacheco(2005)에서도 권하고 있듯이, 스페인어 교수자들은 이들 학생들의 발화를 존중해야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나라에서 습득

한 언어 습관을 유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영근,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foreign\\_index.jsp](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foreign_index.jsp)
- \_\_\_\_\_, 한글 맞춤법,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1.jsp](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1.jsp)
- \_\_\_\_\_, 로마자 표기법,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roman\\_0101.jsp](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roman_0101.jsp)
- \_\_\_\_\_, 표준어 규정,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2.jsp](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2.jsp)
- 김우성(2000), 「스페인어 교육과 중남미 스페인어」, 서어서문연구, 16호, pp. 3-28.
- \_\_\_\_\_(2001),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의 표준어의 문제」, 서어서문연구, 18호, pp. 85-104.
- \_\_\_\_\_(2005),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 현황과 전망」, 이베로아메리카, 7권 1호, pp. 203-228.
- 김우중(2003), 「Spanlglish에 관한 연구」, 서어서문연구, 27호, pp. 11-30.
- \_\_\_\_\_(2005), 「멕시코와 미국의 chicano 스페인어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문학, 36호, pp. 361-375.
- 김현창(1985), 「중남미 서반아어와 이베리아 반도 서반아어의 비교 연구」, 어학연구, 21권 3호, pp. 385-408.
- 박병규(2010),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 언어논쟁」, 스페인어문학, 54호, pp. 215-242.
- 이만기(2013), 『스페인어 통사론』, 한국문화사.
- 이희승, 안병희(2006),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조혜진(2009), 「표준 스페인어에 대한 편견 혹은 무관심: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고찰」, 이베로아메리카, 11권 1호, pp. 133-167.
- Alvar, M.(1986), *Lenguas peninsulares y proyección hispánica*, Madrid: Fundación Friedrich Ebert.
- Ávila, R.(1977), *La lengua y los hablantes*, México: Editorial Trillas.
- \_\_\_\_\_(1992), *Lengua y cultura*, México: Editorial Trillas.

- \_\_\_\_\_(2003), “La pronunciación del español: medios de difusión masiva y norma culta,” *Nueva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No. 1, pp. 57-79.
- Azevedo, Milton M.(2009), *Introducción a la lingüística española*, Prentice Hall.
- Bosque, I., y V. Demonte(1999),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Cabrera Infante, G.(1983), *Tres tristes tigres*, Barcelona: Seix Barral.
- Coseriu, E.(1990), “El español de América y la unidad del idioma,” *I Simposio de Filología Iberoamericana*, Zaragoza: Libros Pórticos, pp. 43-75.
- Cuervo, R. J.(1954), *Apuntaciones críticas sobre el lenguaje bogotano*, Bogotá: Caro y Cuervo.
- Di Tullio, Á(2007), *Manual de gramática del español*, Buenos Aires: La Isla de la Luna.
- Kany, Charles E.(1976), *Sintaxis hispanoamericana*, Madrid: Gredos.
- Knauer, G. y V. Bellosta von Colbe(2005), *Variación sintáctica en español*, Tübingen: Niemeyer.
- Lipski, J. M.(1998), *Latin American Spanish*, London & New York: Longman.
- Medina López, J.(1997), “La situación lingüística de España,” *Lenguas en contacto*, Madrid: Arco Libros, pp. 39-57.
- Moreno de Alba, J. G.(1996), “Sobre la posible ejemplaridad panhispánica del español de América,” *Acta del X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de Lingüística y Filología de la América Latina*, México, UNAM, pp. 872-876.
- Moreno de Alba, J. G.(2002), “El español mexicano: conservador e innovador,” ms.
- Quesada Pacheco, M. A.(2005), “Papel del español americano en la enseñanza del ELE,” *FLAPE I Congreso Internacional: El español, lengua del futuro*, Toledo.
- Real Academia Española(2005),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Madrid: Santillana Ediciones Generales, S. L.
- \_\_\_\_\_(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_\_\_\_\_(2011), *Nueva gramática bás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_\_\_\_\_(2011),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Rosenblat, A.(1962), *El castellano de España y el castellano de América. Unidad y diferenciación*, Caracas: Monte-Avila Editores.
- \_\_\_\_\_(1977), *Sentido mágico de la palabra y otros estudios*,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 Seco, M. y Gregorio S.(1995), *La lengua española hoy*, Madrid: Fundación Juan March.

- Soca, Ricardo(2013), “José Luis Moure: «Nos obligan a elegir los mejores hijos» para el DRAE,” *El castellano.org, la página del idioma español*, julio de 2013, <http://www.elcastellano.org/ns/edicion/2013/julio/moure.html>
- Tamarón, M.(1995), *El peso de la lengua española en el mundo*, INCIPE.
- Vranic, G. (2004), *Hablar por los codos: Frases para un español cotidiano*, Madrid: Edelsa.

## BIBLIOGRAFÍA del corpus de DELE

-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B2. Modelo de examen.* Instituto Cervantes, noviembre de 2007.
-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B1 (inicial). Modelo de examen.* Instituto Cervantes, mayo de 2008.
-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B1 (inicial). Modelo de examen.* Instituto Cervantes, noviembre de 2008.
-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B1 (inicial). Modelo de examen.* Instituto Cervantes, mayo de 2009.
-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B1 (inicial). Modelo de examen.* Instituto Cervantes, 2012.
-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B2. Modelo de examen.* Instituto Cervantes, 2012.

## 이 만 기

서울대학교  
mankilee@snu.ac.kr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2013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4일



# Standard Spanish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an-K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Man-Ki (2013), Standard Spanish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Abstract** In this paper, we redefined the concept of Standard Spanish as a recommendable language in the field of Spanish Language Teaching in Korea.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various dialects of Spanish covering from Spain to Latin America. The instructors of Spanish in Korea tend to teach Spanish of the Iberian Peninsula since they consider it as the standard language. It is because the most of them have the peninsular accent as they have done their Ph.D. program in Spain. But in fact, there is not a Standard Spanish, nor an educated Spanish which can be identified by Spanish native speakers. Furthermore, due to the rapidly growing trades and exchanges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importance of American Spanish is increasing and there is a greater demand to learn American Spanish by Korean stude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troduced the language policy of the Royal Spanish Academy (Real Academia Española) and the Association of Spanish Language Academies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as they admit the wide varieties of Spanish.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pursue the unity of the Spanish in order to make people to adopt the standard form when teaching Spanish as a second language. We insist that we need to recognize the extensive variety of Spanish dialects in phonetics and lexical field, so that our students may perceive and learn them in order to enrich their linguistic knowledge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Spanish. However, in the morphosyntactic field, we recommend to the instructors to adopt the language policy of the RAE-AALE, in order to increase educational efficiency and quality. This is because the Spanish morphosyntactic varieties are fairly limited comparing with phonetic and lexical varieties as might be disregarded in teaching and there seems to be not many problems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with Spanish native speakers. In addition, we try to point out the

problem of DELE, rega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European Spanish and the American Spanish.

**Key words** Standard Spanish, Variety of Spanish, Real Academia Española, Foreign Language Teaching